

# 나란히 앉은 박근혜-최순실 눈도 안 마주쳐

**박근혜 첫 재판 이모저모**

**초췌한 얼굴에 표정은 굳어**

**유영하 변호사와 꺾속말**

**회한 잠긴 듯 천장 보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공여 혐의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법정에 출석했다.

## “직업은?” “무직입니다”

구속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정각에 법정에 입장한 재판부는 개정 선언을 한 뒤 법정 옆 대기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입장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정면을 응시하며 법정에 들어와 재판대 오른편 피고인석에 앉았다. 옆자리엔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답답한 표정을 유지하던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일어서서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주소를 묻는 말엔 “강남구 삼성동...”, 생년월일이 1952년 2월 2일이 맞느냐는 말엔 “그렇다”고 했다. 이는 재판 시작 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다.

그는 감색 사복을 입고 울림머리를 한 것처럼 뒷머리를 머리 집개로 고정했지만,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03번이 적힌 배지가 달렸다.

## 외면한 ‘40년지기’

재판장이 시작을 알리자 피고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초췌한 얼굴에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띠고 들어섰다.

박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은 뒤 곧장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법정에 들어섰으나 40년 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은 서로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일어나 인사했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서로 인사하지 않았다.

출근 앞만 응시하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짧게 꺾속말로 대화할 뿐 최씨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재판 때보다 다소 초췌한 모습의 박 전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은 양손을 팔걸이에 얹은 채 회한에 잠긴 듯 목을 젖혀 전장을 올려다보거나 목이 타는 듯 변호인이 종이컵에 따라 준 물을 한두 차례 들이켰다.

## 390원짜리 핀으로 울림머리

구속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나오면서도 특유의 ‘울림머리’ 스타일을 고수해 눈길을 끌었다.

현직에 있을 때처럼 옆머리에 많은 실핀을 꽂지는 않아 예전만큼 정갈하지는 않았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은 검정색 큰 머리핀 여러 개로 옆머리를 고정하고, 뒷머리는 집게핀으로 모은 모습이었다.

서울구치소에서 ‘집게핀’의 가격은 1660원, ‘머리핀’은 390원에 판매된다. 이 밖에 머리끈은 330원, 머리띠는 83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은 최순실씨도 박 전 대통령이 옆 머리를 정리한 것과 같은 머리핀을 이용해 머리를 한 가닥으로 묶고 있었다.

## ‘역사 재판’의 현장 417호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열린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417호 형사대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건 등 굵직한 ‘역사적 재판’이 열렸던 ‘단골 장소’다.

당시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150석 규모로 서울고법·지법 내 법정에서 가장 큰 규모인 417호 법정도 배정됐다. 21년 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배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로 이곳 피고인석에 서게 된 셈이다.

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1·2심 재판을 받았다.

## 여야 엇갈린 반응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은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법과 국민 앞에 대한민국을 국정과제로 돌고 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다. 그 어느 때보다 겸허하게 머리를 숙여야 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에 범치주의를 바

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장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무책임한 국정운영과 국민 기만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인 법원만큼은 공정한 재판으로 결코 정치적 오해를 받거나 역사적 흠결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극적 몰락” 외신도 주목

외신들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모습을 자세히 다루면서 ‘40년지기’인 피고인 최순실 씨와의 법정 조우에도 관심을 보였다.

AP통신은 “수갑을 차고 눈을 내리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패 재판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AFP통신도 어두운 얼굴의 박 전 대통령이 푸른 바지 정장을 입은 채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정에 출석했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은 법정이 “극적으로 몰락한 박 전 대통령의 가장 최근 무대”라고 표현했다.

외신들은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직업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박 전 대통령이 “직업이 없다”고 답한 사실도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교황청, 남북 화해 적극 지원을”

김희중 대주교, 文 대통령 친서 들고 바티칸 도착

## 남북정상회담 중재 주목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특사인 김희중(70)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이 북핵 위기 해결과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교황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한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겸 광주대교구 교구장(대주교)은 23일부터 바티칸에서 교황청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특사 활동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대주교는 22일 조만간 교황을 직접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과도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그동안 한국과 한반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교황청과 교황청에 사의를 표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화해·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황청이 그동안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콜롬비아 평화 협정 타결 등에 상당한 막후 역할을 하는 등 적대국 또는 갈등 관계에 있는 세력 간의 관계 정상화와 화해에 기여한 것을 고려할 때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남북 정상 회담이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겸 광주대교구 교구장(대주교)이 지난 20일 오후(현지시간)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 북핵 문제를 푸는 협상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김 대주교는 그러나 “친서에 남북 정상 회담 등의 중재와 같은 구체적인 언급은 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英 공연장 테러 추정 폭발...19명 사망·50여명 부상

지난 22일 밤(현지시간) 영국 북서부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에서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콘서트가 끝난 직후 관객들이 공연장을 빠져나가던 밤 10시30분경 출입구 부근 매표소에서 폭발물이 터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확히 3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맨체스터 경찰 당국이 파악한 사망자만 현재까지 19명, 부상자도 50명을 웃돈다. 그레이트맨체스터 경찰 당국은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이 같은 수사 상황을 공개하고 응급구조 활동이 진행 중인 만큼 주변 지역 접근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 ‘문재인 시대-광주 군공항 이전’ 1면에서 계속

설명회는 5조7480억원에 달하는 군공항 이전 사업비가 풀릴 경우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4500억 규모의 이전지 주변 개발비용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막대한 지원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도 예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해당 후보지 시·군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계획이다.

가까스로 현장을 빠져나온 생존자들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고 전했다. 폭발물이 터진 장소 부근에 있던 수십 명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다에 쓰러졌으며 이 광경에 놀란 관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몰려나갔다.

영국 경찰은 일단 테러범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테러가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테러 사건으로 간주하고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의 테러 대응 전담팀과 영국 정보국인 MI5이 수사에 투입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지는 시군과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해당 지자체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현 부지 831만㎡를 1530만㎡의 대체 용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은 1964년에 건설됐다.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50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보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녹지 담745㎡ 매3,659만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종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평로제비야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치평동 상가 매매**

- 상무나이트 옆 수림상가
- 10층 중 10층 795㎡(250평)
- 임대가(5000만/350만)
- 감정/시세 8억 7700만
- 급매 7억 700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33평)
- 교육환경 최상
- 시세 4억 3000만
- 매매 4억 1500만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28평)
- 임대중(400만/월 47만)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5900만

**문의 010-9203-6161**